

## 눈꺼풀 양성종양의 임상 양상

### Clinical Characteristics of Benign Eyelid Tumors

장성민 · 이 화 · 백세현

Sung Min Jang, MD, Hwa Lee, MD, PhD, Se Hyun Baek, MD, PhD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report the relative frequency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benign eyelid tumors.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of 192 consecutive patients admitted to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with benign eyelid tumor between January 2009 and December 2014 was undertaken, and clinical records including age, sex, involved site, and pathology of tumor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All eyelid tumors were confirmed histopathologically.

**Results:** The sexual distribution revealed 87 males and 105 females with benign eyelid tumors. The mean age at diagnosis was  $42.6 \pm 19.2$  years. Molluscum contagiosum ( $5.5 \pm 3.5$  years) and pilomatrixoma ( $14.0 \pm 15.6$  years) were generally found in younger individuals, while seborrheic keratosis ( $60.2 \pm 15.8$  years) and squamous cell papilloma ( $50.5 \pm 13.4$  years) occurred predominantly in elderly patients. Tumors were most common on the upper lid (63.0%). The four most frequent subtypes were melanocytic nevus (37.5%), epidermal cyst (8.3%), squamous cell papilloma (5.7%), and seborrheic keratosis (5.2%).

**Conclusions:** The most common histopathological diagnosis of benign eyelid tumors was melanocytic nevu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pidemiological information that will be useful for diagnosis and therapy of such tumors.

J Korean Ophthalmol Soc 2016;57(2):174-180

**Keywords:** Benign eyelid tumor, Epidermal cyst, Melanocytic nevi, Squamous cell papilloma

눈꺼풀 종양은 안과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종양 중 하나이다. 눈꺼풀은 다른 피부조직과 마찬가지로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혈관 조직 등 많은 조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양성 및 악성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sup>1,2</sup> 특히 눈꺼풀에서는 Lee et al<sup>3</sup>은 눈꺼풀 종양의 빈도가 양성종양(67.8%), 악성종양

(32.2%) 순임을 보고하였고, 외국의 경우에도 Deprez and Uffer<sup>4</sup>는 양성종양(82%), 악성종양(18%)을 보고하는 등 악성종양보다 양성종양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졌다. 국내에서 이전에 눈꺼풀 양성종양에 대한 분류와 빈도에 대해 보고된 바<sup>3</sup> 있지만 증례 수도 많지 않았고, 전반적 분류 및 발생 빈도에 대한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조직학적으로 확진 받은 눈꺼풀 양성종양을 통해 임상 양상 및 발생 빈도에 대해 알아보고 육안적 특징 및 감별질환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Received: 2015. 7. 23.      ■ Revised: 2015. 10. 1.

■ Accepted: 2015. 11. 20.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e Hyun Baek, MD, Ph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148 Gurodong-ro, Guro-gu, Seoul 08308, Korea  
Tel: 82-2-2626-1260, Fax: 82-2-857-8580  
E-mail: shbaek6534@korea.ac.kr

\* This study was supported in part by Alumni of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2015.

### 대상과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조직병리학적으로 확진 받은 눈꺼풀 양성종양 192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나이 및 성별 분포, 각

종양별 발생 빈도와 발생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눈꺼풀 가장자리에 발생한 종양은 면도 생검(31명, 16.1%)을 시행하였고, 그 외의 눈꺼풀 종양에 대해서는 절제 생검(161명, 83.9%)을 시행하여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 결 과

눈꺼풀 양성종양으로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총 192명의 환

**Table 1.** Sex and age distribution of benign eyelid tumors

Age (years)	Number		Total (%)
	Male	Female	
0-9	9	6	15 (7.8)
10-19	9	2	11 (5.7)
20-29	9	11	20 (10.4)
30-39	14	20	34 (17.7)
40-49	18	25	43 (22.4)
50-59	13	15	28 (14.6)
60-69	11	15	26 (13.5)
70-79	3	10	13 (6.8)
80 <	0	2	2 (1.0)
Total (%)	86 (44.8)	106 (55.2)	192 (100)

**Table 2.** Benign eyelid tumors

Type of tumor	Number (%)	Age (years)	Sex (female/male)	Location (upper/lower)
Melanocytic nevi	72 (37.5)			
Intradermal nevus	54 (28.1)	42.4 ± 13.6	35/19	28/26
Compound nevus	18 (9.4)	33.3 ± 16.3	9/9	14/4
Tumors of the epidermis				
Epidermal cyst	16 (8.3)	42.4 ± 19.2	6/10	11/5
Squamous cell papilloma	11 (5.7)	50.5 ± 13.4	6/5	5/6
Seborrheic keratosis	10 (5.2)	60.2 ± 15.8	7/3	5/5
Dermoid cyst	7 (3.6)	17.6 ± 12.3	3/4	7/0
Inverted follicular keratosis	1 (0.5)	38.0	1/0	0/1
Tumors of eccrine and apocrine gland origin				
Syringoma	2 (1.0)	50.5 ± 0.7	1/1	1/1
Hidrocystoma	1 (0.5)	64	0/1	0/1
Hair follicle tumors				
Trichoepithelioma	3 (1.6)	38.0 ± 5.0	1/2	3/0
Pilomatrixoma	2 (1.0)	14.0 ± 15.6	1/1	2/0
Chronic inflammation	49 (16.8)	45.6 ± 23.1	25/24	31/18
Vascular tumors	7 (3.6)			
Capillary hemangioma	4 (2.1)	33.5 ± 16.6	0/4	2/2
Cavernous hemangioma	2 (1.0)	28.5 ± 23.3	1/1	2/0
Others	1 (0.5)	39.0	1/0	1/0
Tumors of neural crest origin				
Neurofibroma	3 (1.6)	67.3 ± 8.4	3/0	2/1
Miscellaneous				
Xanthelasma	2 (1.0)	55.0 ± 7.1	0/2	2/0
Molluscum contagiosum	2 (1.0)	5.5 ± 3.5	2/0	0/2
Lipoma	1 (0.5)	74.0	1/0	1/0
Xanthogranuloma	1 (0.5)	2.0	1/0	1/0
Others	2 (1.0)		1/1	1/1
Total (%)	192 (100)		104/86	119/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unless otherwise indicated.

자 중 남자 87명(45.3%), 여자 105명(54.7%)이었다(Table 1). 진단 시 평균 나이는 42.6 ± 19.2세였고, 50세 이상에서 흔한 질환은 지루성각화증(Seborrheic keratosis, 60.2 ± 15.8세), 편평상피 유두종(Squamous cell papilloma, 50.5 ± 13.4세), 신경섬유종(Neurofibroma, 67.3 ± 8.4세), 지방종(lipoma, 74세), 땀샘낭종(Hidrocystoma, 64세), 땀관종(Syringoma, 50.5 ± 0.7세)이었고, 20세 미만에서 흔한 질환은 물사마귀(Molluscum contagiosum, 5.5 ± 3.5세), 모기질종(pilomatrixoma, 14.0 ± 15.6세), 유피낭종(Dermoid cyst, 17.6 ± 12.3세)이었다. 발생 위치 분포는 위눈꺼풀에 더 호발하는 경향을 보였다(121안, 63.0%).

조직학적 소견은 멜라닌 세포성(Melanocytic nevus) 모반이 37.5% (72명)로 가장 많았고, 그중 피내모반이 28.1% (54명), 복합모반 9.3% (18명)를 차지하였다. 표피(epidermis)에서 발생한 양성종양의 경우 총 23.4% (45명)였고, 표피낭종(Epidermal cyst)이 8.3% (16명), 편평상피 유두종 5.7% (11명), 지루성 각화증 5.2% (10명), 유피낭종 3.6% (7명), 역모낭성 각화증(Inverted follicular keratosis) 0.5% (1명)로 표피낭종이 가장 흔한 종양이었다(Table 2). 부속기관 종양은

총 2.7% (8명)로 흔하지 않았고, 에크린샘 및 아포크린샘 기원 종양은 땀관종 1.0% (2명), 땀샘낭종 0.5% (1명)였고, 모낭 기원 종양은 모낭상피종(Trichoepithelioma)이 1.6% (3명), 모기질종이 1.0% (2명)였다(Table 2). 혈관 기원 종양은 총 3.6% (7명)였고, 모세 혈관종(Capillary hemangioma) 2.1% (4명), 해면 혈관종(Cavernous hemangioma) 1.0% (2명)였다. 신경 능선 기원인 신경섬유종도 1.6% (3명) 보고 되었고, 황색판종(Xanthelasma) 1.0% (2명), 황색 육아종(xanthogranuloma) 0.5% (1명), 물 사마귀 1.0% (2명), 지방 종 0.5% (1명)였다(Table 2).

## 고 찰

눈꺼풀은 안구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기계적으로 보호하고, 과도한 증발로부터 눈물막을 보호하며, 눈물을 분비하고 각막에 눈물을 적셔주는 등의 시기능 정상 구조 및 기능 유지에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이다.<sup>2</sup> 눈꺼풀 종양의 발생 원인은 자외선 노출, 화학성 발암물질, 만성자극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sup>5</sup> 개인적 감수성, 민족, 유전적 차이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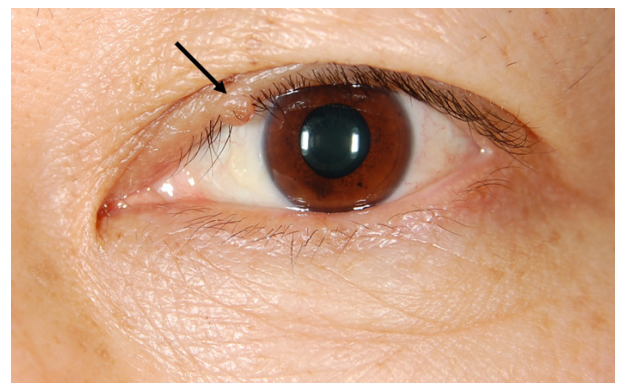
눈꺼풀 종양의 빈도 및 유형에 대해서는 저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Welch and Duke<sup>1</sup>는 5년 동안 6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양성종양은 전체 눈꺼풀 종양의 88.7%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유두종과 각화증(20.3%), 모반(14.4%), 산립종(14.4%) 순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O'Brien and Braley<sup>6</sup>나 Reese<sup>7</sup>도 양성종양이 각각 전체의 84%와 69%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역시 유두종, 모반 등의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Deprez and Uffer<sup>4</sup>의 경우 전체 눈꺼풀 종양의 84%를 양성종양으로 보고하였고 편평세포 유두종, 지루성 각화증, 멜라닌 세포성 모반 순이었다. Lee et al<sup>3</sup>은 피내모반(40%), 만성 염증(11.3%), 복합모반(11.3%), 지루성 각화증(10.0%) 순으로 보고하였고, Bak et al<sup>8</sup>은 유피낭종(27.2%), 혈관종(18.2%), 모반(15.2%)의 순, Lee and Lee<sup>9</sup>는 유피낭종(37.5%), 모반(17.2%), 혈관종(14.1%) 순으로, Choi et al<sup>10</sup>은 피내 모반(44.6%), 지루성 각화증(16.1%), 복합모반(10.7%) 순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멜라닌 세포성 모반(72명, 37.5%), 표피낭종(16명, 8.3%), 편평 상피 유두종(11명, 5.7%), 지루성각화증(10명, 5.2%) 순으로 외국의 보고와는 발생 빈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외국 연구 중 비교적 많은 case인 5,504명을 대상으로 한 Deprez and Uffer<sup>4</sup> 연구에서는 편평세포 유두종(26%), 지루성 각화증(21%), 멜라닌 세포성 모반(20%) 순으로 보

고하고 있고, Al-Faky<sup>11</sup>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땀샘낭종(Hidrocystoma, 29.3%), 콩다래끼(Chalazion, 21.6%), 피부폴립과 사마귀(skin tag and wart, 15.3%) 순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온난한 기후의 영향으로 땀샘관의 과도한 활동 때문일 거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인종에 따른 피부색을 포함한 유전적 요소, 지리 및 기후적인 차이가 눈꺼풀 종양의 발생 빈도에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전 국내 연구에서 Lee et al<sup>3</sup> (80명), Choi et al<sup>10</sup> (56명)은 본 연구와 임상양상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Lee and Lee<sup>9</sup> (64명)는 유피낭종이 가장 많은 종양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 대상 중 36명(56.3%)이 소아여서 소아에서 더 흔한 질환인 유피낭종이 많이 보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전 국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192명)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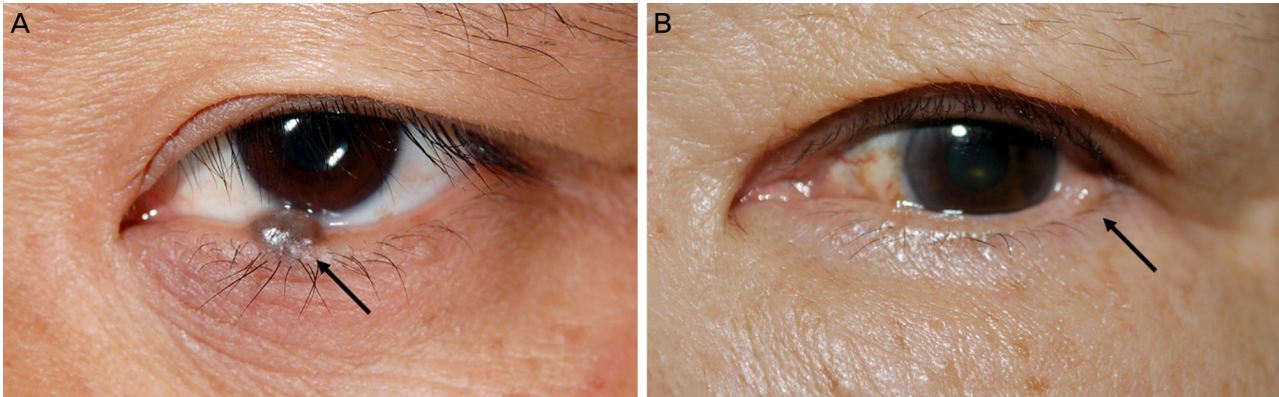
## 유형

본 연구에서는 멜라닌 세포성 모반 중(37.5%, 72명) 피내 모반(28.1%, 54명), 복합모반(9.3%, 18명)이었고, 유피낭종(8.3%, 16명), 편평 상피 유두종(5.7%, 11명), 지루성 각화증(5.2%, 10명) 순으로 멜라닌 세포성 모반이 가장 호발하였는데 모반은 조직 내에서 모반세포의 위치에 따라 조직학적으로 피내모반, 경계모반, 복합모반으로 분류되고 초기에는 편평한 색소반의 경계모반으로 시작하여 대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모반(Fig. 1)을 거쳐 결국에는 피내모반(Fig. 2)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는다.<sup>12</sup> 즉 모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의 표층에서 심층부로 이동한다. 따라서 멜라닌 세포성 모반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피내모반이 눈꺼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된 것으로 생각된다. 멜라닌 세포성 모반이 비색소성(Nonpigmented type,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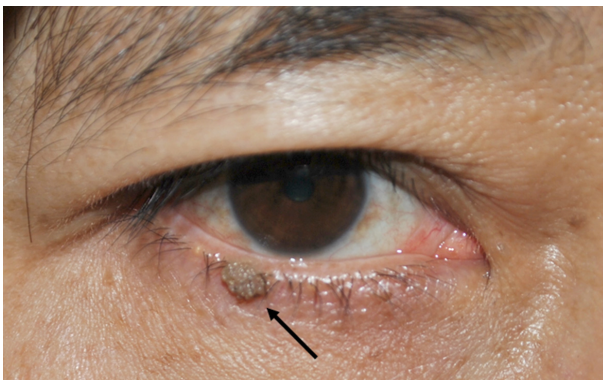


**Figure 1.** Compound nevus. A compound nevus of the upper eyelid margin in a 48-year-old woman (black 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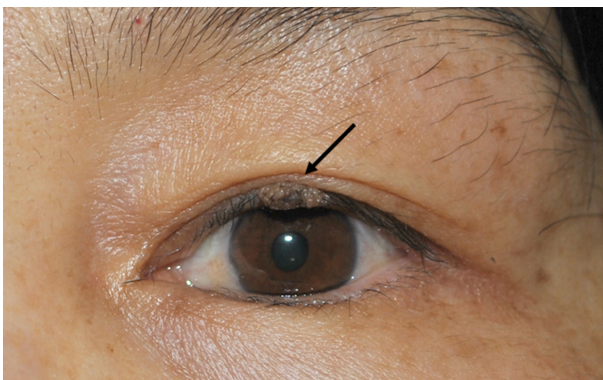




**Figure 2.** Intradermal nevus. (A) A pigmented melanocytic nevus at the lower eyelid margin in a 34-year-old man (black arrow). (B) A nonpigmented melanocytic nevus of lower eyelid in a 69-year-old woman (black 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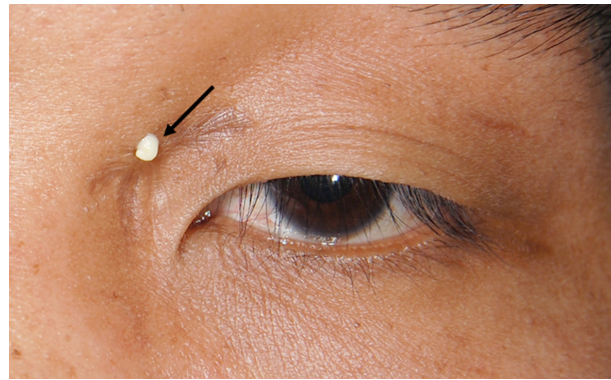
**Figure 3.** Squamous papilloma. A slightly elevated, pigmented mass located on the lower eyelid in a 52-year-old woman (black arrow).



**Figure 4.** Seborrheic keratosis. An elevated brown-colored mass located on the upper eyelid in a 47-year-old woman (black arrow).

일 경우 유두종, 바닥세포암 등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유두종(Fig. 3)은 단안 혹은 양안성의 양성종양으로, 중심부에 혈관이 있고 이를 편평상피 세포가 둘러싸거나 덮는 형태를 나타내므로 유두종이라고 불린다. 병변은 무경성 또는 유경성이고, 주로 주변 조직과 비슷한 색깔을 보인



**Figure 5.** Epidermal cyst. A smooth, soft, yellowish ruptured epidermal cyst located on the upper eyelid in a 27-year-old man (black arrow).

다.<sup>13</sup> 단독으로 생기지만 증식해서 여러 개가 되기도 한다. 임상적으로 유두종은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만약 빠른 성장을 보일 경우 다른 진단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외국의 경우 편평상피 유두종 및 지루성 각화증이 눈꺼풀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나<sup>4</sup> 본 연구에서는 멜라닌 세포성 모반, 표피낭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지루성 각화증(Fig. 4)은 중년 이상의 노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얼굴부위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성숙이 지연된 표피세포로 구성되며 멜라닌을 포함할 수 있어서 색소성 종양과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sup>14</sup>

표피낭종(Fig. 5)은 모낭 누두(infundibulum)로부터 기원하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병리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포로 구성된 낭종벽 내부에 층상 구조를 한 다수의 케라틴을 함유하고 있고, 부드럽고 둥글며 피부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는 노란색의 낭종이다.<sup>15</sup> 유피낭종(Fig. 6)은 선천성 종양인 분리종(Choristoma)의 일종으로 양성종양이며 눈꺼풀에 흔히 발생하고, 표면이 외배엽 조직인 표피로 덮



여 있고, 주로 증배엽조직인 섬유 조직이나,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낭, 한선, 피지선이 산재하며 피지나 상피세포가 내용물로 형성되어 있다.<sup>15</sup> 임상적으로 부드러운 피하종양으로 뼈 막과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는다.<sup>16,17</sup>

부속기관 종양은 총 8명으로 흔하지 않았고, 에크린샘 및 아포크린샘 기원 종양인 땀샘낭종(Hidrocystoma) 1명, 땀관종(Syringoma) 2명, 모낭 기원 종양은 모기질종(Pilomatrixoma)이 2명, 모낭상피종(Trichoepithelioma)이 3명이었다. 땀샘낭종(Hidrocystoma)은 물선의 땀샘에서 기원하는 양성종양으로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땀샘이 있는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발생하고 눈꺼풀테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눈꺼풀 종양의 1-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외관상 부드러운 반구형의 반투명한 단일성 결절로 나타나고<sup>18</sup> 본 연구에서는 64세 여성의 아래눈꺼풀에 발생한 1예가 있었다.

모기질종(Fig. 7)은 비교적 드문 피부 양성종양으로 주로 백인에게서 볼 수 있고 황인종에서는 드문 것으로 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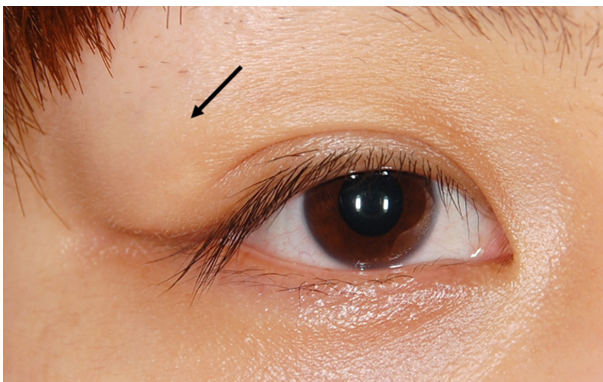
다.<sup>19</sup> 대개 소아나 젊은 층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안와 주변부에서는 주로 위눈꺼풀과 눈썹에서 흔히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각각 1명씩 위눈꺼풀에 발생하였고,  $14.0 \pm 15.6$ 으로 젊은층에서 발생하였다. 모기질종은 특징적인 소견으로서 다른 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데 피부층에 위치하고 있어 병변 위의 피부와는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고, 약 83%에서 석회화가 동반되어 단단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회백색 결절이 피부를 통해 관찰될 수 있다. 또한 병변위의 피부는 적색, 자색을 나타낸다.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표피낭종, 유피낭종, 과형성(hyperplasia), 소아 황색육아종(Juvenile xanthogranuloma), 횡문근육종 등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한 표피낭종은 피부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며 피부는 연노란색을 띠고 부드럽고 둥글며, 대개 청소년과 성인에서 나타난다. 비슷한 부위와 나이에 발생하는 유피낭종은 정상적인 피부 색깔을 나타내고 하부조직과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피부층에서 회백색의 결절을 보이지 않는다.<sup>16,17</sup>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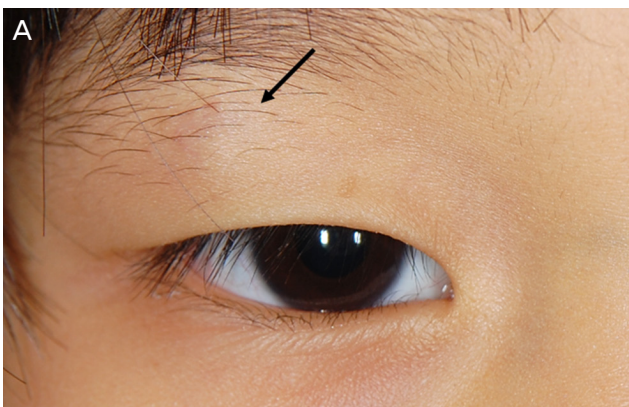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눈꺼풀 양성종양은 전 연령층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모기질종(Pilomatrixoma)과 물사마귀(Molluscum contagiosum)는 어린 나이에 호발하고 지루성각화증(Seborrheic keratosis)은 노년층에 호발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비록 수는 적지만 모기질종( $14.0 \pm 15.6$ 세), 물사마귀( $5.5 \pm 3.5$ 세)로 어린 나이에 호발하고, 지루성각화증( $60.2 \pm 15.8$ )으로 발생 연령이 높아 이전 연구들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성별

본 연구에서 눈꺼풀 양성종양은 여자 106명, 남자 86명으로 여자에서 더 많았다. 대부분의 양성종양의 경우 환자



**Figure 6.** Dermoid cyst. A smooth, subcutaneous mass in the lateral aspect of the eyebrow in a 27-year-old woman (black arrow).



**Figure 7.** Pilomatrixoma. (A) A fairly well circumscribed mass located on the upper eyelid in a 3-year-old child (black arrow). (B) When he closed his eye, the lesion is well demarcated (black arrow).

의 미용적인 목적에 의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성에서 더 호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발생 위치

눈꺼풀 양성종양의 발생 위치는 Lee et al<sup>3</sup>은 위눈꺼풀(28.8%), 아래눈꺼풀(26.3%), 안쪽 눈 구석(9.3%), 가 쪽 눈 구석(2.5%), 다발성(1.7%) 순으로 보고하였고, Kim and Chung<sup>20</sup>은 위눈꺼풀 30예, 아래눈꺼풀 28예로 위눈꺼풀에 더 많이 분포하였고 Choi et al<sup>10</sup>은 아래눈꺼풀 27예, 위눈꺼풀 26예로 아래눈꺼풀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눈꺼풀에 더 호발하는 경향을 보였다(121안, 63.0%).

임상적으로 눈꺼풀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병소를 보이는 경우, 병소의 출현부위의 기간이 길고 특별한 증상이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정상 조직의 변형을 가져올 정도가 아니고 외관상 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도 적극적 수술을 권하지 않고 환자 또한 수술에 잘 응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 병소의 조직학적 소견을 얻는 것은 실제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양성종양의 육안적 특징과 역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눈꺼풀 종양은 육안적 특성만으로 양성인지 악성인지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sup>21</sup> 반드시 수술적 절제 및 조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모든 양성 병변의 조직검사를 포함한 것이 아닌 제한점이 있지만, 조직병리학적 진단을 받은 많은 수를 포함한 연구로서 임상에서 안과 의사들에게 눈꺼풀 종양에 대한 역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REFERENCES

- 1) Welch RB, Duke JR. Lesions of the lids; a statistical note. *Am J Ophthalmol* 1958;45:415-26.
- 2) Allington HV, Allington JH. Eyelid tumors. *Arch Dermatol* 1968;97:50-65.
- 3) Lee HK, Hu CH, Kang SJ, Lee SY. Clinical analysis of lid tumors. *J Korean Ophthalmol Soc* 1997;38:1892-8.
- 4) Deprez M, Uffer S.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eyelid skin tumors. A retrospective study of 5504 cases and review of literature. *Am J Dermatopathol* 2009;31:256-62.
- 5) Hornblass A, Hanig CJ. *Oculoplastic, Orbital and Reconstructive Surgery*. Vol. 1.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88; 193-205.
- 6) O'Brien CS, Braley AE. Common tumors of the eyelids. *J Am Med Assoc* 1936;107:933-8.
- 7) Reese AB. *Tumors of the Eye*, 3rd ed. New York: Medical Dept., Harper & Row, 1976; 54-6.
- 8) Bak SI, Lee SH, Bak BG. Benign tumors of the eye and its adnexa. *J Korean Ophthalmol Soc* 1978;19:333-9.
- 9) Lee TS, Lee JJ. Analysis of classification and incidence of eyelid and orbital tumors. *J Korean Ophthalmol Soc* 1997;38:1700-5.
- 10) Choi JH, Chi MJ, Baek SH. Clinical analysis of benign eyelid and conjunctival tumors. *J Korean Ophthalmol Soc* 2003;44:1268-77.
- 11) Al-Faky YH. Epidemiology of benign eyelid lesions in patients presenting to a teaching hospital. *Saudi J Ophthalmol* 2012;26:211-6.
- 12) Lee JC, Chyung EJ, Park SR. Clinical and histopathological observation on acquired melanocytic nevus (1975~ 1985). *Korean J Dermatol* 1988;26:874-8.
- 13) Older JJ. *Eyelid Tumors. Clinical Diagnosis and Surgical Treatment*, 2nd ed. New York: Raven Press, 2003; 47.
- 14) Lee GS, Ahn KJ, Kim JM, Lee ES. A histopathologic study of the seborrheic keratosis. *Korean J Dermatol* 1992;30:76-80.
- 15) Choi YH, Chung BS, Choi KC. A statistical survey of cutaneous epithelial cysts. *Korean J Dermatol* 1986;24:61-6.
- 16) Orlando RG, Rogers GL, Bremer DL. Pilomatricoma in a pediatric hospital. *Arch Ophthalmol* 1983;101:1209-10.
- 17) Perez RC, Nicholson DH. Malherbe's calcifying epithelioma (pilomatricoma) of the eyelid. Clinical features. *Arch Ophthalmol* 1979;97:314-5.
- 18) Smith RJ, Kuo IC, Reviglio VE. Multiple apocrine hidrocystomas of the eyelids. *Orbit* 2012;31:140-2.
- 19) Moehlenbech FW. Pilomatricoma (calcifying epithelioma). *Arch Dermatol* 1973;108:532-4.
- 20) Kim KH, Chung WS. Classification and therapeutic effect of benign and malignant eyelid tumors. *J Korean Ophthalmol Soc* 1997;38:703-9.
- 21) Kersten RC, Ewing-Chow D, Kulwin DR, Gallon M. Accuracy of clinical diagnosis of cutaneous eyelid lesions. *Ophthalmology* 1997;104:479-84.

---

= 국문초록 =

## 눈꺼풀 양성종양의 임상 양상

**목적:** 눈꺼풀에서 발생한 양성종양의 임상 양상과 발생 빈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에서 조직학적으로 진단 받은 192명의 눈꺼풀 양성종양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총 192명의 환자가 눈꺼풀 양성종양으로 진단 받았으며, 남자 87명(45.3%), 여자 105명(54.7%)이었다. 진단 당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2.6 \pm 19.2$ 세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지루성 각화증( $60.2 \pm 15.8$ 세), 편평 상피 유두종( $50.5 \pm 13.4$ 세)은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며, 물사마귀( $5.5 \pm 3.5$ 세), 모기질종( $14.0 \pm 15.6$ 세)은 더 낮았다. 발생 위치는 위눈꺼풀이 아래 눈꺼풀보다 더 많았다(121안, 63.0%). 조직학적으로 분류해 보면 멜라닌 세포성 모반(72명, 37.5%), 표피낭종(16명, 8.3%), 편평 상피 유두종(11명, 5.7%), 지루성각화증(10명, 5.2%) 순이었다.

**결론:** 눈꺼풀 양성종양으로 진단된 192명의 환자 중 가장 흔한 것은 멜라닌 세포성 모반이었다. 본 연구가 임상에서 눈꺼풀 종양에 대한 역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안과학회지 2016;57(2):174-180〉

---